

성공적인 결과, 원인은?

- 트랙1에서 트랙2로 넘어가는 부분을 한 명의 강사가 담당함
- 지속적인 동기 부여
- 담당자의 신뢰
- 학생들의 의지
- 24시간 소통
- 결석하면 연락해서 관심주기
- 1교시에 중요한 이야기 한다고 얘기해서 지각 줄이기

숨은 실패, 강사의 고민

- 벌써 3회째 지속되는 고민
- 이렇게 가도 좋은가?
- 분명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만, 때론 성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?
- 자세히 설명하면 학생들이 포기하고,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죄책감이 든다
- 평소 윤성관 대표에게 하소연하곤 했지만, 듣는 사람도 짜증날 것 같아서 이번엔 혼자 고민함
- 자세히 설명하는 걸 따라오는 학생들이 좋은 건 강사가 아닌 팀장의 마음일까?
- 아직 나는 멀었나보다